

# 목포대양산단 조성·분양 성공적 완료 특수목적법인, 설립 10년 만에 해산

분양률 96.37%·8000억 투자계약  
146개사 입주·1200명 일자리 창출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이 분양을 마무리하고 10년 만에 사라진다.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목포대양산단(주)가 청산 절차에 앞서 해산했다.

지난 2012년 대양산단 조성 및 분양을 위해 설립된 목포대양산단(주)는 올해 4월 분양계약 업무를 마무리하고 대출금 만기 상환 등 법인 목적을 최종 달성했다.

이에 목포대양산단(주)는 지난달 25일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안'을 의결했다. 법인 해산으로 상법 제531조에 따라 법인 청산인에 최창호 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목포대양산단(주)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법인 해산 사실을 신문과 법인 홈페이지 공고한다. 이해관계(소송) 등 제반 사항이 종결되면 법인 청산은 최종 마무리된다.



목포 대양산단 전경.

<목포시 제공>

지난 2016년 준공된 대양산단은 현재 분양률 96.37%를 기록 중이며 그동안 8000억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해 146개 기업이 입주했고 12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김 가공업체가 집중 입주하고, 앞으로 수산

식품수출단지가 조성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및 물류 중심지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복을 빕니다

진도군, 각종 행사 취소하고 찻김굿 등 추모제 열어

진도군이 이태원 참사로 관내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진도 찻김굿을 열었다. <사진> 진도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도향토문화회관 광장에서 사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비는 진도 찻김굿 등 추모제를 개최했다.

진도 찻김굿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추모 공연을 개최한 바 있다.

진도군은 진도향토문화회관 등 행사장 인근에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합동 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 고통·상심을 겪고 계실 가족, 부상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도 찻김굿으로 희생자 추모와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진도군민들의 마음을 담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kwangju.co.kr

# 완도군, 미세먼지 저감 숲 '일석삼조' 효과

연안여객선터미널·농공단지 인근 경관 조성·주민 쉼터 제공

완도군이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가로 경관 개선, 주민 쉼터 제공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완도군은 기후 대응 기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17억원을 들여 완도 연안여객선터미널 도로변과 농공단지 사거리 등 2곳에 숲을 조성했다.

연안여객선터미널은 24시간 항구를 이용하는 각종 선박 및 화물차로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지역이다.

이용 차량의 경우 연간 300만 대에 육박하고 화물차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이곳은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분진 등이 바다에서 내륙으로 부는 해륙풍과 편서풍 등으로 인근 주거 지역에 유입될 위험이 있어 미세먼지 차단이 시급한 곳이다.

군은 지역 난대 수종인 완도호랑기시나무, 황칠나무, 겨울철 동해에 강한 동청목을 심어 약 1km에



농공단지 사거리에 조성된 미세먼지 저감 숲.

달하는 숲을 조성했다.

숲이 주민 산책 코스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층 부에는 홍가시나무와 황금사철을 심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남도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편에 속하지만 국지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곳에 숲을 조성해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녹색 환경이 지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해남군, 고천암 생태공원에 발 담금시설 '물길쉼터' 조성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공모 선정

해남군이 고천암 생태공원에 물길쉼터를 조성한다.

해남군은 2023년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지원 지자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 등 총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폭염 밀집도가 높은 공원·광장 부지 등에 발 담금시설을 갖춘 물순환형 수변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은 황산면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바닥분수 인근에 36㎡ 규모, 2식의 발담금시설과 함께 그늘막 등을 내년 5월까지 설치하게 된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에는 바닥분수와 족욕장 등이 설치돼 올 여름 동안 5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찾을 정도로 생태 놀이터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신안 자생식물 컬러북 프로그램 본격 운영

신안군이 지역에 서식하는 자생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신안 자생식물 컬러북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신안군에 따르면 사단법인 라몽 지역자살함께 나눔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임지로 확정된 신안 지역에 서식하는 자생식물을 세밀화 그리기를 통해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신안의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식물 세밀화 개념을 설명하는 '식물세밀화의 이해', 신안에 서식하는 자생식물을 소개하는 '신안의 자생식물', 세밀화 그리는 법과 직접 신안 자생식물을 그려내는 '기본구조 색칠하기', '신안 자생식물 색칠하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자생식물 컬러북 교재'는 신안군에서 2020년부터 매년 신안 자생식물 세밀화 작품 중 16종을 선정하여 일반인이 알기쉬운 식물 설명자료와 신안 자생식물 세밀화



신안 자생식물 컬러북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 <신안군 제공>

등을 삽입해 식물세밀화의 이해, 신안의 자생식물 등을 담았다.

군은 자생식물 컬러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모아 '신안 자생식물 컬러북 그림책' 제작과 '어울림마당' 개최시 세밀화 그림을 전시할 예정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영암군,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영암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책임기관의 재난관리단계별 역량을 종합진단 평가하는 제도이다.

올해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

로 실시한 재난관리평가 결과, 영암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영암군은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적, 재난유형별 매뉴얼 관리, 재난대비훈련 실시 실적, 상황관리, 재난구호 인프라 확보 및 훈련 부문 등 여러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11월호

2022년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가요?

- 살고 싶은 내 집 짓기
- 집과 함께, 행복을 짓다
- 소박한 미소 담은 '평당재'
- 지식강변 빛따스한 '화디정'
- 건축실체는 대하다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 도시  
목포는 낭만 항구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 고하도 트레킹  
근대역사 문화공간들 / '목포의 눈물'과 유달산  
낭만 공간 '밀물다방' / 원초 감별사가 만드는 김(주)신안씨푸드  
제방 명인의 정성 '그린하우스' / 목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연중 기획-광주 한빈리  
GWANGJU TOUR

#11월 광주여행  
#전일빌딩245 남도관광센터  
#북함문화공간 '미로센터' & '김넷과'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백스푸'

예향 초대석  
전통 증류주 '화요' 신화 쓴 광주요그룹 회장  
조태권  
"문화적 가치 언젠가는 인정받게 됩니다"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공공조형물'  
"여기가 스페이스 워크"  
"철의 도시" 정체성  
조형물로 꽃피워낸 포항

기획-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①  
기록과 기억,  
예술의 발언 속에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다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공공조형물'  
"여기가 스페이스 워크"  
"철의 도시" 정체성  
조형물로 꽃피워낸 포항

해외문화기행 @-오슬로(상)  
자연과 예술의 환상 조합  
'북유럽의 베네치아'  
노르웨이 오슬로

문화트렌드-K클래식 동풍  
세계를 놀라게 한 K-클래식  
비결은 영재교육 시스템이었다

문화 화제  
세 가지 색 광주체험  
테마형 광주시티투어버스 출발합니다!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①  
무등산은 인생 학교이며 우리 얼굴이다